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윤리적 제안

이봉석 (감리교신학대학교, 겸임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위상

1. 능력주의에 은폐된 기회의 불평등
2.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능력주의

III. 능력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위상

1. 능력주의를 지탱해주는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복음주의
2.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 해소 이론

IV. 능력주의에 대한 신학적 위상

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3>

• ABSTRACT •

Understanding of Meritocratic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 of Christian Ethics

Lecturer, Lee, Bong Seo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modernization, Western society conceives an idea of justice as distribut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individuals by individual's share. In capitalism, the idea of justice has become a universal belief that the distribution should accord with each individual's merit. This belief is called meritocracy which in today's society is believed to be an idea of achieving distributive justice upon which all can agree. However, modern meritocracy conceals an unequal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e meritocratic unfairness and the necessity of forgiveness and consolation for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as the righteousness of God. To this end, firs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an unequal structure in meritocratic ideology, which evolves into sentiments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Second, according to Thomas Picketty, hereditary middle class and succession of wealth have always existed in meritocracy. Third, I will confirm that the similarity between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Protestant ethics is no longer valid within financial capitalism.

Key words: Meritocracy, Hereditary Property, Positive Discrimination, Social Darwinism, Consciousness of Merit

I. 들어가는 말

능력주의는 각자가 노력하여 얻은 성과에 따라 몫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자의 공로에 대해 몫을 주장하는 것은 일견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져야 할 몫의 배분 논리는 두 개의 원리가 공존하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뤽 낭시(Jean-Luc Nancy)에 의하면 정의 속에는 평등과 차이(혹은 단수성 *singularité*)가 들어 있다. 이 두 원리는 정의라는 개념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동시에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 앞의 타자 역시 그의 몫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평등과 차이의 원리는 부당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배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평등이고, 남과 다른 것을 인정해 차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차이이다. 만약 ‘나는 다르다’는 차이에 따라 보상하려 하면 그 목록은 사회 구성원 수만큼 기록되어야 하므로 목록 자체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¹⁾ 장-뤽 낭시는 정당함과 부당함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며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의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장-뤽 낭시의 말에 동의하면서 능력주의에서 더 찾을 만한 정의는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적 능력주의의 특수한 정의 개념을 포착하고 기독교 윤리적 차원의 정의와 대화시키기 위하여 위상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능력주의의 은폐된 억압의 실재를 이해하려 한다. 연구 방법론으로서 위상학은 동일한 사회적 사태를 파악하는 데 관찰자가 점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관찰 대상이 다르게 기술되는 데 착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기독교 윤리적 접근은 사회적 사태로서 능력주의를 다르게

1) Nancy, Jean-Luc, *Dieu, la justice, l'amour, la beauté*, 이영선 역,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 (서울: 갈무리, 2012), 80-84.

인식하고 기술한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각 분야의 고유의 인식이 종합되면 능력주의가 일으키는 갈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찾는 데 유효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방법론을 통해 본 논문이 목표로 하는 ‘만들어지고 있는 정의’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첫 번째 장에서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사회구조를 살펴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과 개인에게 덧씌워진 책임을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 능력주의에 자유사상을 덧입힌 경제학적 주장을 듣게 될 것이다. 동시에 능력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부의 불평등 연구를 소개하며 능력주의가 지닌 본원적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세 번째 장은 캐서린 태너의 신학적 접근을 통해 능력주의를 넘어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였다. 그 새로운 세상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다. 세상을 근원적으로 변혁하는 ‘그리스도에 헌신’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의 공동체’를 소개함으로써 온전한 정의 개념을 얻을 것으로 본다.

II.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위상

기독교 사상사 속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분은 명확하다.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두 도성에 대한 논의를 개신교 신앙의 독특성으로 전개한 사상가는 루터이다. 루터가 기독교 사상적 전승을 이으면서 말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저세상의 나라가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지상의 어떤 나라도 아니다. 루터의 「소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개인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²⁾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각 개인의 영혼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각 사람의 안에서 정의 관념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이

2) 양명수, 『이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2.

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는 인간들의 욕망과 중앙 권력에 의해 세워진 구상적 질서로 다스려지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 나라’ 개념에는 국가와 법의 문제뿐 아니라 법에 들어 있는 인류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³⁾ 이와 같은 루터의 ‘세상 나라’ 개념 속에서 정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신학의 정의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속한 것이기에 세상이 세운 정의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합일할 수 있다. 신학적 정의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추상적이며 관념적 정의이다.

“법은 시민적 정의를 통해 외부적 평화와 질서를 이루며 삶과 세상을 보존한다. 그러나 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을 의식한다. 신학적 정의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학적 정의는 정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끈다.”⁴⁾

세속을 위한 정치적 정의(justitia politica) 또는 시민적 정의(justitia civilis)는 각 개인에게 그 자신의 몫을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분배한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적 정의가 몫의 배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근원적 정의(justitia prima)가 정치적 정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져 의롭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각 개인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근원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용서와 위로의 사랑의 정의가 시민적 정의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때 진정한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

3) 위의 책.

4) 위의 책, 111.

이와 같은 신학적 정의 개념에서 능력주의를 보면, 그것은 회개할 것 없는 자기 의이고, 용서와 위로보다 자기 몫의 확보라는 독점적이며 배타적 권리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보전이라는 시민적 정의 차원에서 첫째로 능력주의에 불평등 구조가 숨겨져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 능력주의가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화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능력주의의 두 가지 의도를 알면 위로와 용서 그리고 인정의 덕목이 신학적 정의로서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 능력주의에 은폐된 기회의 불평등

2013년 사회학자 오찬호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에서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안에 실제적 배타성과 혐오가 들어 있음을 드러냈다. 일견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재능과 노력으로 부와 지위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기질을 따른 노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몫의 분배에 있어 차별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재능과 노력의 차이가 인정되기 이전부터 자리 잡은 기회의 불평등이 은폐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오찬호는 대학교 이름의 서열화가 기회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3년 KTX에서 여승무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를 보는 당시 대학생들을 상대로 오찬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2,000건이 넘는 이십 대의 반응을 접하며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다. 암울한 시대에 더 암울하게 변해버린 ‘자기 계발 하는 이십대들의 슬픈 집착’에 관한 몽타주다. 아니 어쩌면 괴물이 되어버린 그들을 만나는 일일는지도 모른다”고 근심과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⁵⁾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사건’은 확실히 이십 대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부당함’과 ‘정의롭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왜 당시 젊은이들은 부당하다고 느낀 것일까? 2013년 당시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에 예민했던 이십대들은 한 번의 파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과정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단체행위로 젓과 꿀이 흐르는 정규직이 된 것에 대해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노력’이란 개인적 변수가 사회적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사회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특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오찬호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 아래 ‘노력’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 사회구조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밝힌다. 놀랍게도 2020년 6월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약칭 인국공 논란)이 동일한 논리로 부정되고 문제시되었다. 7년여 시간이 지나 2013년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비판했던 이십 대들이 ‘기회는 균등했는가?’, ‘절차는 공정했는가?’,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가?’의 물음을 던지며 자신들이 차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시 되풀이 하였다.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공무직법안’,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교육공무직의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이 발의 되었을 때 전교조와 교총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해서 학교에서 아무나 정규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법안의 발의는 취소되었다.

여기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실상 ‘능력주의’라는 내면적 도덕 감정이 재화와 서비스에

5)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2014), 100.

대한 ‘분배적 정의’와 ‘공정함’의 외피를 두르고 표출된 집단적이며 무의식적인 피해의식이 지옴음이 아니다. 장은주는 능력주의가 표방하는 ‘기회 균등’이 정의로워지려면 우선 성, 인종, 출신, 학력, 학벌 등의 요소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거되어야 하고, 경쟁 관계의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의 차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능력주의 체제에서 개인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된다고 가정되는 능력은 상당한 정도로 부모의 지능이나 외모의 유전에서부터 경제적 수준,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의 상속에 영향을 받는다.”⁶⁾

사회학자 박일권은 『한국의 능력주의』에서 ‘할 수 있는 자의 권리’를 정의라 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비판을 가한다. 박일권이 한국 사회의 독특함으로서 능력주의(meritocracy)를 역사적으로 좇으며, 한국의 능력주의의 기원을 과거제도에서부터 고시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 그는 시험의 결과로서 긍정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과 실패한 이의 배제가 긍정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었다고 본다. 차별과 배제가 당위로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한국인은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과 시험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역사학자 알렉산더 우드사이드(Alexander Woodside)는 동아시아 3국, 즉 중국, 한국, 베트남 역사에서 시행된 과거제도를 살펴보면, ... 그 시기는 서구 사회가 세습적 신분사회에 머물러 능력주의적 인재 선발을 아직 상상도 못 하던 때였고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도 유사했다. ...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배분하는 능력주의 체제는 서구사

6) 장은주,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28(2021), 143. 장은주는 민주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두가 이 사회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장은주는 아이리스 매리언 영의 주장과 같이 올바른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접근한다.

회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출현했다. 근대적 합리성이 오래전에 제도 안에 정착되었던 것이다.”⁷⁾

한국 사회에서 능력이 우월하면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하고 능력이 열등하면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이 오래전부터 당연시되었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과 노력에 정당한 보상체계에 근거한 능력주의가 정의롭다는 보편적 인식이 자본주의 이전부터 구축 되었다. 박일권에 의하면 ‘한국인은 불평등에 분노하기는커녕 불평등(차등 분배)을 지고의 사회정의로 적극 요구하고 있다.’⁸⁾ 한국인이 특권을 누리는 불평등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특권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는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부유층에서 태어난 남자와 지방의 빈곤층에서 태어난 여성이 같은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기회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나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의 원칙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 오찬호, 박일권 그리고 사회철학자 장은주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오를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이미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의 허상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주의 속에 드러나지 않은 노력 없이 점유한 세습적 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능력주의를 두고 정의를 가장한 부정의, 즉 사이비 정의이다’라는 직설적 비판은 능력주의가 자연법에 부응하는 정의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⁹⁾ 결과적으로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며, 배제와 특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박일권은 능력주의를 따른 정의를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말을 빌려 ‘자

7) 박일권, 『한국의 능력주의』 (서울: 이데아, 2021), 28.

8) 위의 책, 162.

9) 위의 책, 8.

본주의 사회의 작동장치 혹은 ‘끝없는 축적의 불합리성을 감추는 가면’이라 표현했다.¹⁰⁾

경제학자 주병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 기회 불평등은 급속히 악화하여 왔다.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는 인식 역시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 상승의 에스컬레이터로서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¹¹⁾ 달리 말해 아버지 학력이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성취 기회가 많아져 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¹²⁾ 동일한 결과가 독일 사회학 교수들의 연구에서 확인 된다. 파트리크 자흐베(Patrick Sachweh), 사라 렌츠(Sarah Lenz), 에벨린 슈타머(Evelyn Sthamer)는 “불평등 증가 추세 속의 주관적 계층 상승 인식”에서 ‘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이 부모보다 더 높은 소득 지위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초기 청년기를 불안정한 지위에서 보낸다고 보고하였다.¹³⁾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이라는 개인의 노력 외적인 조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일

10) 위의 책, 15.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1. 25.), 조세재정브리프, https://www.kipf.re.kr/bbs/kor_Plaza_PressRelease/view.do?ntId=B000000016035Wj4kA5g 2020년 4월 15일 접속

12) 오성재 주병기,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3(2017), 23. 주병기는 사회 경제적 환경별로 가구소득의 확률분포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구주 부친의 직업과 학력이라는 두 가지 환경변수를 활용하여 기회불평등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바, 두 환경 모두에서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회불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의 환경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서 지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13) Sachweh, Patrick 외, *MERITOCRACY AND FEMINISM*, 김광식 외,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고양: 사월의 책, 2021), 21.

것이다.

2.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 가치로 개인을 압박한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핵심은 성공이 아닌 실패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여기서 적자생존의 규칙에 적용하지 못한 개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정의로 풀어야 할 사회구조적 모순은 보지 않은 채 게으름과 무능으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결과를 따지다 보니 각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이르지 못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노력하지 않아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고 준비하지 못해 직장을 얻지 못한 것이다. 개인의 노력이 서열화 된 도덕의 위치에 눌러 불평등 해소로 가야 할 문제의식이 각 개별적 집단이나 개인의 불공정 논란으로 그리고 업신여김 권리를 부여한 서열화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¹⁴⁾ 분명 노력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가난의 설움에 모욕을 까지 얻는 것이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모든 합당한 희망만이 아니라 그런 희망에 대한 생각조차도 금지된 알제리 하층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14)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168. 오찬호는 과거의 대학 서열화와 지금의 서열화는 다르다고 본다. 지금의 서열화는 학벌을 형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멸시와 업신여김의 가해자적 서열화로 이해해야 한다. “멸시의 피해자들은 또 어떤 지점에선 멸시의 가해자로 존재한다. 서울대생은 연고대생, 연고대생은 서강대생, 서강대생은 또 ... 그렇게 밀바닥까지 멸시의 고리는 이어진다.”

“그의(하층 프롤레타리아) 자식들에 대해 그가 소망하는 미래를 질문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학교에 갈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교육받으면, 그들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 나에게 꿈꾸는 것만이 허락돼요.”¹⁵⁾

위에 소개된 알제리 노동자와의 심층연구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는 새롭게 형성된 자본주의에 의해 자신의 바람이 확장되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는 노동자의 자녀가 바라는 선망 직종이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보면 이는 불가능하다. 교육 없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희망과 현실적 상황 사이에 단절이 있음을 알고 있다. 사회적 공간에서 1세대 내의 지위 상승과 마찬가지로 2세대 간의 사회적 이동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화·학력자본이 만든 아버투스가 형성되지 못하면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 자신과 자식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분 상승할 희망이나 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이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절망을 강요당하게 된다.

마이어의 제안과 해석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고 현실적 ‘필요’로부터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하는 능력주의의 근거에 대한 부정은 능력주의 안에 은폐된 책임의 개인화를 드러내는 데 중요하다. 그것은 ‘특권을 지향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혹은 ‘지위 상승을 위한 노력은 일반적이다’라는 대전제를 흔들어서 능력주의가 공격하는 각 개인의 존엄감을 회복한다는 데 있다.

15) Bourdieu, Pierre.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최종 철 역, 『자본주의 아버투스』 (서울: 동문선, 2002), 80.

같은 맥락에서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은 어떤 좋은 삶의 가치를 개인들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 보지 않고, 그 좋은 삶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을 사회가 어느 정도 담아 내며 지원할 수 있는가에서 정의를 구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근대적 ‘정의’ 개념은 음험하고 위험한 전제 위에 구상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적 정의는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며, 또 자신이 행동하게 될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암묵적이든 명목적이든 의존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대전제를 상정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 본성이라는 관념 자체가 오도하는 기능을 하거나 억압(주변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선한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⁶⁾ ‘도덕적 주체가 되고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근대적 정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 억압을 가하고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이러한 만장일치적 정의론이 각 개인을 주변화하며 억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복지 수급자가 평등한 시민적 지위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지적장애인들과 신체장애인들은 지원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료적 기관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복지 관료 체제 관련자들과 정책들이 거들먹거리고, 보복하고, 모욕하고, 자의적으로 취급해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¹⁷⁾

16)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9), 96-97.

17) 위의 책, 133.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들은 그들이 지금 억압받는 방식으로 다른 특정 집단을 억압한다. 각 개인이나 집단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가 된 것이다. 능력주의가 정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과 보상의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에서 의사결정 절차, 노동의 사회적 분업, 문화 등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제도 수립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관계적 정의(정치적 정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측면에서 능력주의는 ‘나의 세습적 지위는 보지 말고 차별하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정의 요청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정의는 상대적이며 부분적이다. 부족한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속의 정의에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나’ 밖의 타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을 느끼듯이 밖에서 인간 내부로 요청하는 신적인 율음을 알게 될 때 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 정의가 분배적 정의의 근거가 됨은 세상이 발전시킨 정의 담론이 틀려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애통합과 자비를 지닐 때 더 공동체 안에 율음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능력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위상

1. 능력주의를 지탱해주는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복음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 실현이라는 전혀 다른 심급으로 정의 개념을 이끌어간다. 경제학자 하이에크(Hayek)는 출발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에 대해 불평등이 아니라 자유의 실현이라 변증한다. 가족, 상속, 특별한 교육, 문화적 및 도덕적 차이, 기후 토양 등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들의 불평등성은 많은 사람

에 의해 비판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가족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인정되면, 신분 상승이 꼭 한 세대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세대에 걸친 계속된 노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 한다.¹⁸⁾ 게다가 각 개인이 모두 동일한 출발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각 개인을 동일한 출발 수준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능력을 인위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낮추는 것이기에 자유에 대립한다. 다음으로 기회의 평등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최상의 교육은 불평등이라 비판받고 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비판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질투라 평가절하 한다. 만약 모든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공동체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면 변명을 이끄는 개인의 책임은 사라진다. 따라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의 질투를 용인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요구를 사회정의로 위장한 것에 대해 승인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유사회를 보전하는 일이라 주장한다.¹⁹⁾

능력주의를 따른 차별의 정당화 논리는 역사적 뿌리가 깊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개신교 금욕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과 함께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경제와 종교 두 영역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근검, 근면, 절제 등의 금욕주의적 행위가 사회적 규범으로서 서구 자본주의의 자본 형성과 노동 원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칼빙의 '구원 예정론'과 관련하여 '나는 선택받은 자의 하나인가?'라는 구원의 물음은 종교적 불안을 신자들 사이에 일으켰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세상에서의 성공해야 한다는 규범적 명령을 보편화시켰다.²⁰⁾

18) Hayek, Friedrich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I*, 김균, 『자유헌정론 I』 (서울: CFE 자유기업원, 2014), 156.

19) 위의 책, 159-161.

20) 유경동 외, 『기독교 윤리학 사전』 (용인:킹덤북스, 2021), 758.

결과적으로 개신교의 금욕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며 목표가 이끄는 삶에 대한 가치를 행함의 원칙으로 삼았다. 베버 자신이 사랑의 윤리 혹은 신념의 윤리를 따르기보다 책임 윤리 편에 선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성인일 수 없고, 악에 대해 불가피하게 폭력으로 저항해야 하는 악한 현실 인식 때문이다.

“세상의 그 어떤 윤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실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경우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위험한 수단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적으로 선한 목적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위험한 수단과 부정적 결과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당화’해 줄 수 있는지를 가리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윤리도 세상에는 없다.”²¹⁾

베버가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내주어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윤리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윤리적 태도를 취한 것에서 정의의 상대성을 보아야 한다. 사실 정의가 현실적 책임을 고려한 상대이어야 자유가 보장되고, 산상수훈과 같은 절대 원칙으로부터 인간의 행함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버는 개신교 경건주의 전통을 자신의 연구에 반영하였다.

영국의 청교도 전통에 속한 사회진화론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적자생존을 사회에 적용하였다. 그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과정에서 인류가 진화한다고 본 것이다. 19세기 말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미국에서 더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사회가 추구하였던 자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실상 스펜서는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며 기업의

21) Weber, Max, 박상훈 역, 『소명으로서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2016), 212-213.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종(種)의 자연적 진화를 막는 것과 같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은 인류의 진보를 심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²²⁾

사회진화론이 통용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각 개인이나 기업이 더 공격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회에 유익이 된다. 하이에크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며 자기 생각을 증명하는 논거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아니라 ‘배워서 습득한 규율’에 기초한 문화적 경쟁의 선택이다.²³⁾ 문화적 경쟁을 따른 사회적 선택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며, 이런 열린사회 속에서 개개인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이에크가 보기에 인류의 문제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드는 공식을 각 개인에게 강제하는데 있다. 인류 발전을 인류 스스로가 종결시키는 결정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드는 공식, 즉 분배적 정의를 사회에 구현하는 일이다. 하이에크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차용하여 평등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주의의 옹호에 사용한 것이다.

역시 청교도 전통에 속한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초기자본주의 원리로서 능력주의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부, 명예 그리고 높은 지위로 승진하기 위해 벌이는 경주에서 각 개인은 모든 경쟁 상대를 능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열심히 달리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동기로부터 관대한 행위를 수행한 사람은 자신의 봉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애정과 감사를 받고, 존경과 승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

22) 유경동 외, 『기독교 윤리학 사전』, 608.

23) Hayek, Friedrich A.,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서울: 문예출판사, 1990), 187.

을 한 사람이 가지는 공로의식(consciousness of merit) 혹은 응분의 보상 의식이다.²⁴⁾ 반대로 지위 상승을 위한 열정이 한 사회 안에서 옳은 것으로 권장되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 등 방종한 관행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의 번영은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 방종한 관행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로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그리고 과오에 대해 분노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공과에 대한 상벌의 도덕 감정들은 현세에서 그치지 않는다. 종교는 사후의 세계까지 그 행위를 추적하여 불의한 행위가 내세에서 처벌되리라고 가르친다. 그러한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다. 신의 정의는 현세에서 공로와 과오를 인정하여 사회질서를 세우는 데 여전히 필요하다.²⁵⁾

애덤 스미스는 도덕철학에서 관찰한 ‘정의’ 개념을 경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기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생산을 위한 자본은 극도의 절약에 의해 증가하며 낭비와 서툰 행동에 의해 감소한다고 보았다. 근면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절약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²⁶⁾ 자본과 도덕적 행함이 함께 연동된다. 이러한 자본가의 금욕적 태도와 개신교 윤리 사이의 접목은 이후 베버에 의해서 재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본주의 안의 능력주의의 사상적 계보의 뿌리는 개인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고 장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정의론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열린사회에서 능력주의야말로 불공평의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입장의 정의론을 기독교 복음주의는 공유할 뿐 아니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24)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김광수 역, 『도덕 감정론』 (파주: 한길사, 2017), 233-236.

25) 위의 책, 248.

26) 위의 책, 417-418.

그러나 능력주의는 자유를 신봉하는 이념적 측면이 있다. 개인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하는 것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강제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정치철학이다. 한마디로 소극적 정의와 자유방임을 이상화한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능력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체를 구상할 수밖에 없다. 정의를 집행하는 주체가 국가인 이상 공동체주의의 비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2.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 해소 이론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는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양극화 현상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었다. 그의 연구가 본 연구에 의미 있는 것은 피케티 자신이 밝히듯이 부의 불평등 분배 문제가 다시 중심 이슈가 되면 부의 분배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불평등의 작동 원리를 밝히고 미래에 대한 명료한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²⁷⁾ 사실 피케티의 연구 성과는 21세기 초 번성하고 있는 세습 자본주의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부의 분배 문제에 집중한 피케티는 진지하게 묻는다. 노동이나 유산이냐?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피케티는 19세기 소설이 묘사하였던 시대의 풍조를 경유한다. 1835년 출판된 『고리오 영감』의 내용 요약을 보면 당시 검찰 공무원의 연봉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유산을 통해서만 자신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부자 보트랭이 공부, 재능,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27) Piketty, Thomas, *LE CAPITAL AU XXI^e SIÈCLE*, 장경덕 외 역, 『21세기 자본론』 (과주: 글항아리, 2014), 27.

는 라스티냐크에게 하는 설교이다.

“프랑스에 검사장은 고작 스무 명뿐인데, 그 자리를 노리는 자가 2만 명이 나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네. 그들 중에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가족도 팔아넘길 우매한 자들도 있지. 이 직업이 험오스럽다면 다른 직업을 골라보게. ... 자네는 매달 1,000프랑씩 써가며 10년을 고생한 끝에 서재와 사무실을 얻고, 여러 모임에 바쁘게 뛰어다니고, 소송을 얻기 위해 서기에게 아부하고 법정 마루를 혀로 핥기까지 해야 할 거야”²⁸⁾

프랑스에서 20세기 초까지 노동과 학업만으로 상속받은 부를 통해 얻은 안락함과 같은 동일한 안락함을 얻기 힘들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속받은 부에 의한 부의 쏠림 현상과 매우 심한 임금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로서 능력주의가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가장 유능하고 재능 있는 개인들이 부유한 상속인들만큼 품위 있고 고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이런 유의 주장이 미래에 더 극심한 불평등을 낳은 토대가 될 것이라 우려의 예측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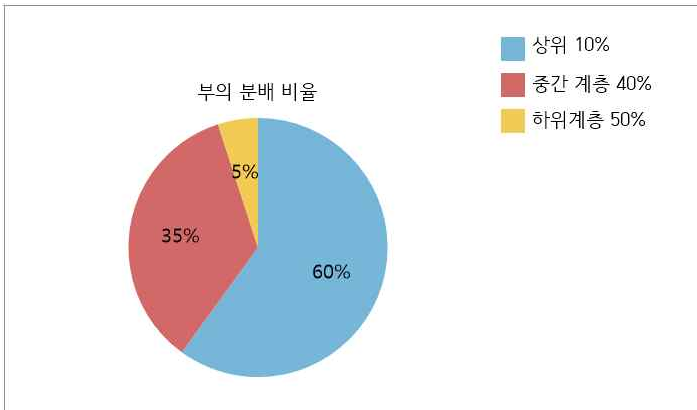
아래의 도표는 노동보다 상속이 더 많은 부를 점유한다는 역사적 기록이다.²⁹⁾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자본 소유의 불평등 수치를 통해 보아도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약탈적이다. 대부분의 선진 사회에서 어떤 시기든지 인구의 절반은 전체 부의 5% 조금 넘게 소유했지만, 상위 10%의 부유층은 전체 부의 60%를 때로는 90%를 소유했다. 그리고 40%의 중간계층이 전체 부의 5~35%를 소유했다. 인구의 절반이 5%의 부를 얻었다고 하니, 5천 1백만

28) 위의 책, 289.

29) 위의 책, 410. “조사의 자료는 1791년 프랑스 사회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도입되고 난 이후 재산 등기소에 보관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기에 그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의 남한 인구의 절반인 2천 6백만 명이 5%의 부를 얻었다는 말이다. 이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시대별 지역별 자본소유의 불평등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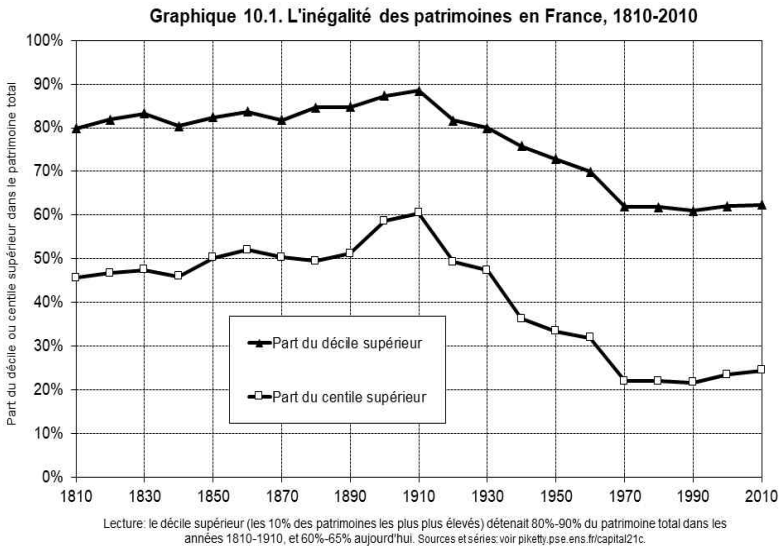
〈표 2〉는 전체 부에서 상위 10% 혹은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을 시기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검은색 삼각형의 연결선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고, 흰색 사각형의 연결선은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다. 그래프 상의 1910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불평등 수치는 무려 90%에 달한다. 이러한 부의 분배는 매우 높은 불평등 비율로서 착취적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이후 부의 불평등이 60%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마저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높은 불평등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 역사 200년의 변천 과정에서 부의 분배에 문제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농지 재분배, 공공부채 말소 그리고 귀족들의 재산에 가한 충격 등과 같은 프랑스 혁명이 있었음에

30) 위의 책, 299.

도 불구하고 자본과 소득 비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³¹⁾ 그것은 프랑스가 자본의 집중이 공고한 세습사회였고, 유산과 결혼 통해 부를 대물림하였음을 말한다. 이는 역으로 노력과 재능으로 신분상승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어쩌면 능력주의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 그것은 출발이 다른 경쟁의 끝은 불공정한 부의 분배이다.

〈표 2〉 프랑스에서의 부의 불평등, 1810~2010³²⁾



인류학자 캐런 호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능력주의의 환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캐런 호는 『호모 인베스트우스』에서 공부와 재능을 통해 선망하는 월스트리트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대학과 투자 기관 사이의 친족 네트워크와 학연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밝혔다. 캐런 호에

31) 위의 책, 410.

32) 위의 책, 408.

의하면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이 특별히 선호하는 대학교가 있다. 그들은 하버드나 프린스턴 출신의 학생들만을 선발한 것이다.

“개별적인 엘리트 집안 대신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같은 엘리트 가족이 자리를 채웠다. 이 가족은 올드보이 연줄보다는 대학교 동문에 근거한 새로운 종류의 친족 관계에 의존했다. ... 이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 인종이 노골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모든 동문에게 배타적 특권을 확대하면 엘리트주의가 희석될 염려가 있는데도 월스트리트가 ‘엘리트-대학-동문’이라는 중심적 접촉제를 받아들인 이유는 일반적인 최고의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 ‘인간 친족 다리 놓기’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엘리트주의를 확대하고 이동시킨다.”³³⁾

월스트리트에 진입하는 내부 통로가 따로 있었다. 월스트리트와 대학교의 위계를 재생산함으로써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엘리트 대학교를 ‘긍정적 차별’을 한 것이다. 차별을 통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훨씬 좁게 만들어야 했고, 이로써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 실상 캐런 혼의 심층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놀랍다. 투자 은행의 프린스턴과 하버드 채용 담당자는 학부생들이 금융 분야의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심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숙련된 경력이나 이미 획득한 기술적 전문성을 찾지 않는다. 그저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출신의 똑똑하고 매력적이면 된다.³⁴⁾ 이 사실은 능력주의나 엘리트주의에 위배된다. 그냥 세습적 인적자본이다. 이것이 피라미드 꼭대기를 좁히는 방법이다. 친족과 가족을 자본주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외부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의도적이라면 위험한

33) Ho, Karen, *Homo Investus*, 유강은 역, 『호모 인베스트스』 (서울: 이매진, 2013), 98.

34) 위의 책, 103.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친족의 연출과 정서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캐런 호의 ‘인간 친족 다리 놓기’는 능력주의를 통한 부의 분배 방식이 실질적으로 감추고 있는 정당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 파악은 토마스 피케티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금융자본주의 안에서 막스 베버가 지지했던 개신교 노동 윤리, 즉 근면과 절제가 온정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IV. 능력주의에 대한 신학적 위상

베버, 스펜서, 애덤 스미스 등이 속했던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는 자본주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는 이론과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었다. 신학자 캐서린 태너(Kathryn Tanner)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 기독교 전통과의 단절을 주장하며 나섰다.

“기독교 신학자로서 내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1) 안녕할 권리와 일을 묶어 놓은 연결 고리 타파, (2) 우리를 ‘생산적’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 타파, (3) 현재의 자본주의 구성 방식 아래서 창의적 가능성을 구속하는 시간의 연속성과 시간의 함몰 타파를 위한, 내가 믿기로 훌륭한 신앙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개신교 반-노동윤리를 제시하는 것이다.”³⁵⁾

캐서린 태너가 복음주의적 전통과의 단절을 결단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개인에 끼치는 부작용과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기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 사고

35) Tanner, Kathryn, *Christianity and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백지윤 역,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서울: Ivp, 2021), 45.

는 일터가 언제든지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³⁶⁾ 또한 2016년 5월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승강장의 ‘김 군’ 역시 이렇게 구조조정이 수익이 되는 산업구조가 만들어내 불행한 사건이다.³⁷⁾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 대가의 차별화를 용인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짓기는 결국 금융자본이 생산 기업에 요구한 대답인 셈이다. 금융 자본주의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고, 함께 얽매인 노동 속에서 죽음 당한 젊은이를 위해 함께 애통해할 공동체도 없다. 비정한 세상이다.

캐서린 태너는 새로운 삶을 열기 위해 기독교 본연의 가치를 다시 언급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듯이 구원은 단순히 다가올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지금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단절을 통한 근원적 혁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루터에 의해 설파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개인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분명한 것은 보편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세상의 경제 구조는 변화되어야 한다.

36) 김용균 재단, (2022. 02.15), 김용균 재판 1심에 부쳐, <http://yongkyun.nodong.org/?p=27322022년> 4월 8일 2시 접속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40여 년 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한결같았기에 우리는 하루에도 5-6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단순사고와 같이 개인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으로는, 구조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덮어주는 것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최우선되고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7) 연합뉴스, 김은경, (2016.12.14.),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비정규직·하청노동자 실태 드러내, <https://www.yna.co.kr/view/AKR20161213169000004>, 2022년 4월 9일 2시 16분 접속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성공 혹은 구원의 증표일 수 없다. 캐서린 태너의 말처럼 종교적 의미에서 성공은 기독교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무능력과 실패로 인한 순간들을 두려워하거나 자책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가치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된 나의 상대적 가치가 아니다.³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생산적 '자야'에 순종하여 얻은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구원자 되시기를 원하신다. 캐서린 태너가 추구하는 '나의 개별성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개인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 윤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서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캐서린 태너는 '종교적 기획이 협동 기획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말한다.³⁹⁾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신다는 중요한 증언이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존재의 특징인 인간의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공급하실 수 있지만, 그 힘이 누군가의 삶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시작되어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다른 인간들의 협력을 통해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중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 즉 그들 자신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들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조되어 그리스도의 삶이 연장이 된 인간들을 통해 전달된다.⁴⁰⁾

38) Tanner, Kathryn, *Christianity and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232.

39) 위의 책, 240.

40) 위의 책, 240-241.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사람과 연합하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의 결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따라서 서로를 조정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행동은 부차적 효과로서 서로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 기독교 전통과의 단절은 몫의 배분에 온 열정을 쏟아 붓는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보지 않겠다는 위상의 변화이다. 분배적 정의보다 용서와 위로의 사랑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각 사람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회개이다. 일등만 인정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되새김은 능력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일 것이다.

V. 나오는 말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분배와 공정에 관련된 정의 담론 가운데 위치한다. 한 사회 안에서 다수의 사람은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의라 생각한다. 사실 한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나누는 데 있어 사회주의의 시스템을 따를 것인지 혹은 시장과 경쟁 원리를 따를 것인지는 그 사회의 다수의 구성원이 정하는 법과 제도를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느 시점이 되면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미국 남부 도시의 전차들은 백인은 앞쪽에 흑인은 뒤쪽에 타도록 분리되었다. 경제학자 제니 로백에 따르면 전차의 인종차별은 인종 격리를 의무화한 법 때문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전차 좌석의 인종차별은 드문 일이었다. 더구나 전차회사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였다. 인종

별로 다른 좌석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상승을 유발하고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⁴¹⁾ 결과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차별을 용인한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정의는 구상적이며 상대적이다. 문제는 다수의 구성원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정의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는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능력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은 사회적 위상, 경제적 위상, 신학적 위상에서 능력주의에 접근하였다.

먼저 사회적 위상을 통해 능력주의가 숨긴 구조적 모순이 발견되었다. 능력주의가 표방하는 ‘기회균등’이 사회에서 성, 인종, 출신, 학력, 학벌 등의 요소로 그 평등성을 잃으면서 사람들 조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할 과제가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성공 못한 개인은 도덕적 죄인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서 애통한 자를 위로하는 사랑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위상을 통해 능력주의는 개인 자유의 심급으로 전환 되는 것을 보았다. 경제학자와 이를 지지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계통의 학자들이 합일하여 근면, 절제, 검소를 강조하며 성공을 구원으로 혹은 개인 자유의 실현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자유의 확장이 아니고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을 은폐하고 포장하는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피케티는 200년의 자본소득의 자료를 통해 최상위 1%가 독점한 부를 설명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이러한 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끝으로 신학적 위상은 경제적 위상으로부터 구상되었다. 현대 금융 자

41) Manki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s*, 김경환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2018), 469. “전차회사는 인종 격리 정책을 요청한 적도,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의사도 없었다. 단지 인종 격리법 제정, 여론의 압력, 회사 시장을 구속하겠다는 위협 때문이었다. 전차회사 간부들이 인권이나 정의감 때문에 인종 격리를 반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종 격리 제도가 비용을 상승 시킨다는 경제적 고려 때문에 이를 반대한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본주의에 대해 불의함을 종교적으로 지지할 이유가 없을 만큼 금융 자본주의 정신에 개신교 윤리는 반대된다. 이전에 자본주의 정신과 기독교 윤리가 합일되었던 것을 분리하여 기독교 본원의 정신,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지금 실현해 나가자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이 각 사람 안에서 연장된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를 완성할 사랑의 윤리이다.

결과적으로 노력과 재능의 발현에 따른 몫의 배분이 온당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배제, 사회적 분노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정서였다. 애통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거들먹거리고, 보복하고, 모욕하고, 자의적 취급해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엄밀히 능력주의는 ‘세습적 중산층’을 위한 정의이지 전체 부의 5% 놓고 근심하는 인구의 절반(2,550만 명)을 위한 정의는 아니다. 이를 확인하면서 장-뤽 낭시의 말에 공감한다. “즉, 정당하다는 것은 여전히 더 찾아내고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함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데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의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즉 더 많이 기대하고 더 앞서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⁴²⁾ 한국 사회가 공정 담론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의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선한 제도’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42) Nancy, Jean-Luc, *Dieu la Justice l'amour la beauté*, 88.

참고문헌

- 박일권. 『한국의 능력주의』. 서울: 이데아, 2021.
- 양명수.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2014.
- 오성재 주병기.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3(2017), 1-30.
- 유경동 외. 『기독교 윤리학 사전』. 용인: 킹덤북스, 2021.
- 장은주.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28(2021), 134-151.
- Bourdieu, Pierre.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최종철 역. 『자본주의 아비투스』. 서울: 동문선, 2002.
- Hayek, Friedrich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I*.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서울: CFE 자유기업원, 2014.
- Hayek, Friedrich A.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서울: 문예출판사, 1990.
- Ho, Karen. *Homo Investus*. 유강은 역. 『호모 인베스트투스』. 서울: 이매진, 2013.
- Manki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s*. 김경환 ·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2018.
- Nancy, Jean-Luc, *Dieu la Justice l'amour la beauté*. 이영선 역.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 서울: 갈무리, 2012.
- Piketty, Thomas. *LE CAPITAL AU XXI^e SIÈCLE*. 장경덕 외 역. 『21세기 자본론』. 파주: 글항아리, 2014.
- Tanner, Kathryn. *Christianity and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백지운 역.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서울: Ivp, 2021.
- Sachweh, Patrick 외. *MERITOCRACY AND FEMINISM*. 김광식 외 역.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고양: 사월의 책, 2021.
-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김광수 역. 『도덕 감정론』. 파주: 한길사, 2017.
- Weber, Max. 박상훈 역. 『소명으로서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2016.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김도균 · 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9.

연합뉴스. 김은경. 2016.12.14.,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비정규직·하청노동자 실태 드러내, <https://www.yna.co.kr/view/AKR20161213169000004> (2022. 4. 9. 접속)

김용균 재단. 2022.02.15., 김용균 재판 1심에 부처, <http://yongkyun.nodong.org/?p=2732> (2022. 4. 8. 접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25), 조세재정브리프, https://www.kipf.re.kr/bbs/kor_Plaza_PressRelease/view.do?nttId=B000000016035Wj4kA5g 2020년 4월 15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2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국 문 초 록 •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사회는 각 개인에게 그 자신의 몫을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 개념을 구상하였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각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각자의 공로를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믿음이 보편화 되었다. 이것을 능력주의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일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의 구현이라 생각할 법하다. 그러나 현대의 능력주의는 많은 정의 연구들에서 드러났듯이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고 감추고 있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서 용서와 위로의 사랑의 정의가 분배적 정의 개념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안에 불평등 구조가 있음을 밝힐 것이고, 능력주의가 한국사회 안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서로 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경제학자 피케티를 통해 능력주의 안에 세습 중산층과 부의 세습이 자본주의 역사 안에 늘 실재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로 금융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 사이의 유사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이다.

주제어: 능력주의, 세습 재산, 긍정적 차별, 사회진화론, 공로의식
